



22140119



**KOREAN A: LITERATURE – STANDARD LEVEL – PAPER 1**  
**CORÉEN A : LITTÉRATURE – NIVEAU MOYEN – ÉPREUVE 1**  
**COREANO A: LITERATURA – NIVEL MEDIO – PRUEBA 1**

Friday 9 May 2014 (morning)

Vendredi 9 mai 2014 (matin)

Viernes 9 de mayo de 2014 (mañana)

1 hour 30 minutes / 1 heure 30 minutes / 1 hora 30 minutos

---

**INSTRUCTIONS TO CANDIDATES**

-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.
-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.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.
-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*[20 marks]*.

**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**

- N'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'y être autorisé(e).
-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'un seul des passages. Les deux questions d'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.
-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'examen est *[20 points]*.

**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**

-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.
-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.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.
-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*[20 puntos]*.

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.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.

1.

### 고양이와 소설

그 녀석은 팔월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신기루처럼 나에게 왔다. 그리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내 품을 떠났다. 생후 두달을 겨우 넘긴 터키시앙고라 새끼고양이. 그 녀석이 내 집에 올 즈음 나는 하루하루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. 두 권의 유럽 기행기 출간 막바지 작업에 있었고, 마감이 닥친 단편소설과 장편 연재소설 원고까지 한 달 안에  
 5 모두 써내야 했다. 서너 시간을 온전하게 다리 뻗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을 정도로 시간에 쫓기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고양이를 얻기 위해 일 년을 기다려온 어린 아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을 수도 없었다.

푸른 눈의 새끼고양이를 안고 온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줄곧 유일했던 친구였다. 그녀는 일 년 전 어린 고양이를 분양받아 정성을 다해 키워서는 좋은 짝을 찾아주는가  
 10 싶었는데 어느덧 새끼고양이를 네 마리나 보았다. 한 마리는 고양이 아버지에게 보내고, 또 한 마리는 늘 정이 그리운 내 아이에게 안겨주고, 그리고 두 마리는 어미와 함께 자기 집에서 키운다고 했다. 내 아이를 생각하는 그녀의 후의가 고마웠지만,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글을 쓸 독립된 시공간이 늘 아쉬운 나로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였다. 아이는 새끼 고양이를 식구로 들인다는 기쁨에 들떠 내 손을 이끌고  
 15 애완용품 가게로 갔다. 이동장과 화장실을 비롯해서 사료, 빗, 샴푸, 귀청소 소독약까지 사고보니 한 살림이였다. 일 년을 기다려왔건만 아이는 하룻밤이 그 일 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는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. 나는 고양이 꿈에 부풀어 잠든 아이와 아직 오지 않은 새끼고양이의 한 살림과 아직 쓰여지지 않은 원고의 공백을 번갈아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. 그리고 대천에 홀로 계신 노모가 눈에 밟혔다. 내 어머니도 제대로 봉양하지  
 20 못하는 처지에 웬 애완동물 사육인가. 한심스럽고 사치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다.

다음날 날이 밝자 고양이는 예정대로 우리 집에 왔고, 고양이의 모습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고양이보다 앙증맞고 신비롭고 아름다웠다. 어미 젖을 떼고 왔으니 일주일엔 울음 소리를 각오해야 할 거라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녀석은 오는 날부터 마치 내 집에 오래 살아온 가족으로 착각할 만큼 순하게 다가왔다. 평생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건사하셨던  
 25 어머니는 새 식구를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딸을 격려해주셨고, 나는 곧 그 녀석을 데리고 인사차 어머니한테 내려갔다. 그리고 그 길에 대천 해수욕장 나들이도 나갔다. 해수욕장 둔덕의 시원한 해송 그늘에 돛자리를 펴고 노모와 나, 아이와 새끼고양이는 불어오는 해풍을 맞으며 한여름의 달콤한 오수에 빠져 들었다.

그러나 지난 여름 행복했던 바닷가 삽화 속 새끼고양이는 더 이상 나에게 없다. 30 대천에서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녀석을 어여뻐 여기던 선배 소설가에게 완전히 맡겨버린 것이다. 그 후 다시는 그 녀석을 만나지 못했다.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나는 그 녀석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. 그러나 나는 그 쉬운 전화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. 오랜만에 전화를 해온 선배의 말로는 나와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어, 몸이 두 배로 자라났다고, 남편과 단 둘이 사는 선배의 집에서 그 녀석이 얼마나 사랑스런 존재인지  
 35 차분차분 들려주었다.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있는 아들과 함께 그 녀석을 눈앞에 보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.

40 그 녀석을 맞아 행복했지만 곧 그 기억을 놓아버려야 했다. 그 동안 나는 한 친구와의  
우정과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놓고 갈등했다. 그 녀석은 늘 서가에 꽂힌 책들을 뽑아  
들어 그 속의 맹렬한 정신들과 싸우고 흡입하고 전율할 때와 동일한 에너지를 나에게  
요구했다. 내가 그 녀석을 놓든지, 아니면 그 녀석한테 전념하든지 해야 했다. 그 녀석은  
아이가 없는 동안, 그러니까 내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몇 시간 동안, 마치 그러려고  
작정한 것처럼 내 시간을 방해했다. 그러니까 그 녀석의 생체 리듬과 내 작업은 극과  
극에서 잘못 만난 셈이었다.

45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집에 날리는 흰 털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. 그러나  
아이의 방을 초토화시키고도 모자라 내 서재의 책들을 호시탐탐 발톱 세워 노리는 그  
녀석의 번득이는 눈은 용납할 수 없었다. 설상가상 모두가 잠든 심야 시간에 작업해야  
하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때야말로 놀이-벽 타기, 괴성 지르기, 숨바꼭질하기-  
를 벌일 절호의 찬스라도 되는 것처럼 건잡을 수 없이 격렬해지는 그 녀석의 야행성과  
야수성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. 나는 “소설을 쓰게 해줘, 제발”이라는 애원과 함께 그  
50 녀석에게 항복하고 말았고, 아이의 수공과 입회 아래 선배에게 그 녀석과 그 녀석의 살림  
일체를 양도했다. 그 녀석을 태운 선배의 자동차가 도로 저편으로 사라지자 나는 그 동안  
쉬어본 적 없는 안도와 자유의 숨을 쉬었다. 그리고 자! 이젠 소설 좀 제대로 써보자! 두  
손을 꼭 맞잡았다.

55 또 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. 이 겨울 나는 그 여름 한낮의 꿈 같은 삽화에 갇힌  
소설을 써야 한다. 깊은 밤, 그 녀석의 맑고 푸른 눈을 허공에 떠올리며 다짐보다 깊은  
미소를 지어본다.

함정임 <함정임 산문집: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> (2005)

- (a) 이 글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논하시오.
- (b) 이 글에서 사용된 일인칭 작가 시점이 독자의 이해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논하시오.

2.

벼

벼는 서로 어우러져  
기대고 산다.  
햇살 따가와질수록  
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
5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.

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
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.  
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
마음들을 보아라, 벼가 춤출 때.  
10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.

벼는 가을 하늘에도  
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 
바람 한 점에도  
저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.  
15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.

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 
이 넓디 넓은 사랑,  
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 
이 피물은 그리움,  
20 이 넉넉한 힘…….

이성부 <문학과 지성> (1973)

- (a) 이 시에서 주제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.
- (b)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관점에서나 혹은 벼를 묘사하는 데에 인간적인 면이 어떤 식으로 강조되는지 논하시오.